제1146호 2013.3.30~4.5

통 일 부



주 간 북 한 동 향

Weekly Report on North Korea

개 황 | 대남동향 | 내부동향 | 대외동향
주요인물 동정 | 주간보도일지 | 금주의 약사

Weekly Report on North Korea



Contents

제1146호 2013.3.30~4.5

Ⅰ 개 황 ····· 1

Ⅱ 대남동향

정부·정당·단체 특별성명 발표 ····· 2
개성공단 폐쇄 및 북한 근로자 철수 위협 ····· 3

Ⅲ 내부동향

'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' 개최 ····· 4
'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' 개최 ····· 5
김정은, '금수산태양궁전' 방문 ····· 6
원자력총국 대변인,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 ····· 7

Ⅳ 대외동향

'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' 발표 ····· 8

주요인물 동정 9

주간보도일지 16

금주의 약사 ····· 25

개 황

대남동향

정부·정당·단체 특별성명 발표

o 북한은 정부·정당·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'북남관계 전시상황 돌입' 발표(3.30 중통)

개성공단 폐쇄 및 북한 근로자 철수 위협

o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및 조평통 대변인은 개성공단 폐쇄 및 북한 근로자 철수 등을 위협하였음. (3.30 및 4.4 중통)

내부동향

'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' 개최

o 북한은 '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'를 개최하였음.(3.31 중통)

'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' 개최

o 북한은 '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'를 개최하였음.(4.1 중통)

김정은, '금수산태양궁전' 방문

o 김정은은 당 중앙위 정치국·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과 '금수산태양궁전'을 방문하였음.(3.31 중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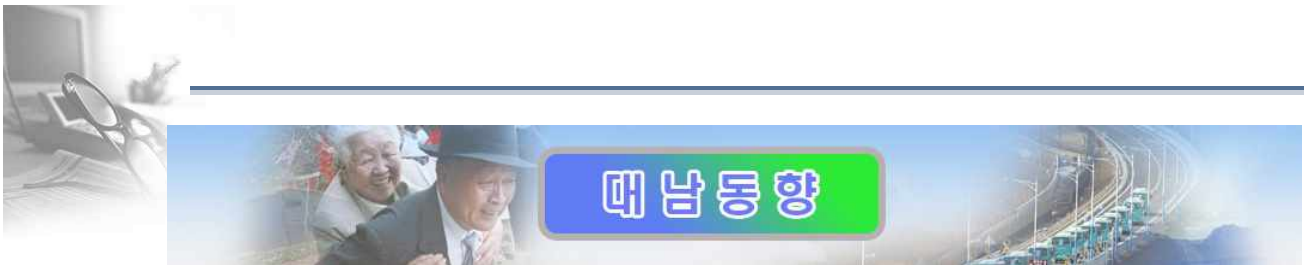
원자력총국 대변인,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

o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'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'과 관련,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하였음.(4.2 중통)

대외동향

'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' 발표

o 북한은 '미국의 핵타격수단'과 관련, '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'를 발표하였음.(4.4 중통)



정부·정당·단체 특별성명 발표

개 요

o 북한은 정부·정당·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'북남관계 전시상황 돌입' 발표(3.30 중통)

주요내용

o 북한의 정부, 정당, 단체들은 천만 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천명함.

1.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가며, 따라서 북남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

2. 미국과 괴뢰패당이 서해 5개섬이든 군사분계선 일대이든 그 어느 지역에서든지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한 군사적 도발을 일으킨다면, 그것은 국지전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며 전면전쟁, 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 것

3. 우리(北)는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

o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에 일떠선 우리(北) 군대와 인민, 온 민족의 의지와 힘을 막을자 이세상에 없음.

개성공단 폐쇄 및 북한 근로자 철수 위협

개 요

o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및 조평통 대변인은 개성공단 폐쇄 및 북한 근로자 철수 등을 위협하였음. (3.30 및 4.4 중통)

주요내용

<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(3.30) >

o 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고 전시상황이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북남 군통신이 단절되었고, 지금 북남사이에는 아무러한 대화통로도 통신수단도 존재하지 않게 됨.

- 이로 인해 남측인원들의 개성공업지구 출입도 극히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음.

o 지금 괴뢰패당과 어용언론, 매문가들은 '북이 외화수입 원천이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대지 못한다'느니, '북의 두얼굴'이니 하는 헛나발을 불어대며 우리의 존엄까지 심히 모독하고 있음.

- 북남관계가 완전히 파탄되고 전쟁전야에 처해 있는 엄혹한 정황에서 개성공업지구가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극히 비정상적인 일임.

o 괴뢰역적들이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, 폐쇄해 버리게 될 것임.

< 4.4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문 대답(4.4) >

o 괴뢰 보수패당과 어용언론들은 대결악습을 버리지 않고 그 무슨 《돈줄》이니, 《밥줄》이니, 《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북》이라느니 하면서 우리가 개성공업지구를 감히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고약한 나발을 계속 불어댔음.

o 극악한 호전분자인 국방부장관 김관진과 같은 군사깡패들까지 나서서 그 무슨 《인질구출을 위한 군사작전》이니 뭐니 하며 전쟁의 불집을 기어이 터뜨려보려 하고 있음.

o 만일 남조선 괴뢰패당과 보수언론들이 못된 입질을 계속하며 시끄럽게 놀아댄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(北)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.

‘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’ 개최

개 요

o 북한은 ‘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’를 개최하였음.(3.31 중통)

주요내용

□ 개 요

o 일시 및 장소: ‘13.3.31(일), 당 중앙위원회 청사

o 참석: 김정은 등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,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

o 의제

1. 현 정세와 발전의 요구에 맞게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당의 과업에 대하여
 - 결정서 ‘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켜 강성국가 건설을 앞당겨 나갈데 대하여’ 채택

2.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 제출할 간부문제에 대하여
 - 당 정치국 위원(박봉주), 당 정치국 후보위원(현영철·김격식·최부일) 선임 등

3. 조직문제에 대하여

□ 주요 내용

o 농업과 경공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민생활을 안정·향상시키고, 자립적 핵동력공업 발전 및 경수로 개발 사업을 통해 전력 문제를 풀어야 함.

o 우주과학기술발전을 통한 통신위성 등 발사, 지식경제 전환, 대외무역 다각화를 해야 함.

o 핵보유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, 세계의 비핵화 전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·강화할 것임.

o 군대에서는 핵무력의 경상적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해나가야 함.

‘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’ 개최

개 요

o 북한은 ‘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’를 개최하였음.(4.1 중통)

주요내용

□ 개 요

o 일시 및 장소: ‘13.4.1(일), 만수대의사당

o 참석: 김정은·김영남·최룡해·박봉주·최영림·장성택·김경희·현영철·김격식·김기남·박도춘·김영춘·양형섭·리용무·강석주·오극렬·현철해·김원홍·김양건·김영일·김평해·곽범기·문경덕·주규창·김창섭·로두철·최부일·리병삼·조연준·태종수·김정각·리명수·김영대·류미영 등

o 개회사 및 폐회사: 최태복(최고인민회의 의장)

□ 주요 내용(의안)

1.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를 수정·보충함에 대하여
   - △서문에 「금수산태양궁전」 내용 추가 △12년 의무교육제 반영
2. ‘금수산태양궁전법’을 채택함에 대하여
   - △보존의무 부여 △「보존위원회」 조직 △‘특별보호구역 설정’ 등
3. 최고인민회의 법령, ‘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할 데 대하여’를 채택함에 대하여
   - △핵보유 정당성 △핵 보복공격 △핵 질량적 강화 △핵 통제규정 등
4. ‘우주개발법’을 채택함에 대하여
5. 최고인민회의 결정, ‘국가 우주개발국을 내옴에 대하여’를 채택함에 대하여
6. 내각의 2012년 사업정형과 2013년 과업에 대하여
   - (‘12년 성과)△희천발전소·단천항 등 대규모 건설 △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성공 등
   - (‘13년 과업)△석탄·금속 등 선행부문 개선 △식량 증산 △원료 국산화 등
7. 201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1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
8. 조직문제
   - 내각총리 교체 : 최영림 → 박봉주(최영림은 상임위 명예부위원장에 임명)
   - 국방위 위원 교체 : 김정각·리명수 → 김격식(인민무력부장)·최부일(인민보안부장)
   - 상임위 서기장 교체 : 태형철 → 홍선옥(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·여맹 위원장) 등

김정은, '금수산태양궁전' 방문

개 요

o 김정은은 당 중앙위 정치국·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과 '금수산태양궁전'을 방문하였음.(3.31 중통)

주요내용

□ 개 요

o 일시: '13.3.31(일)

o 참가: 김정은·김영남·최룡해·장성택·현영철·김경희·김격식·김기남·최태복·박도춘·양형섭·김영춘·리용무·강석주·현철해·김원홍·김정각·리명수·김양건·김영일·김평해·곽범기·문경덕·로두철·주규창·김창섭·리병삼·조연준·태종수 등

□ 주요 내용

o 김정은은 김일성·김정일 입상홀에 들어섰음.

- 육·해·항공 및 반항공군, 노농적위대 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하였음.

- 당 중앙위원회·중앙군사위원회 명의의 꽃바구니가 진정되었음.

o 김정은은 김일성·김정일이 있는 영생홀에 들어섰음.

원자력총국 대변인,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

개 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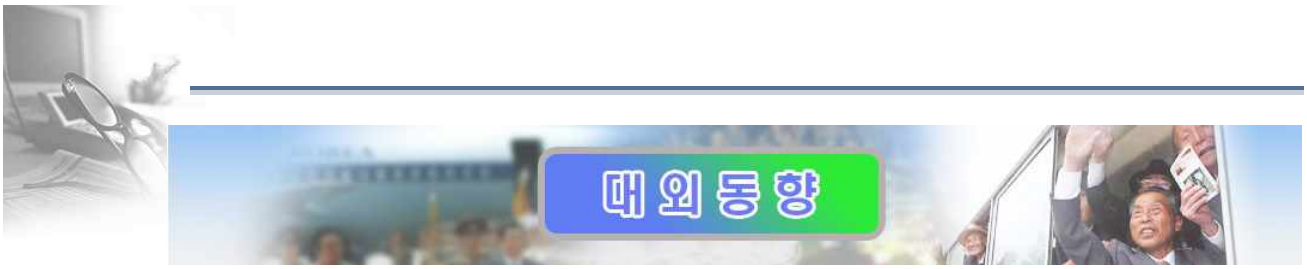
o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'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'과 관련,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하였음.(4.2 중통)

주요내용

o 원자력 부문에서는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전력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하고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·강화해야할 과업이 있음.

o 원자력총국은 우선 현존 핵시설들의 용도를 '병진노선'에 맞게 조절·변경하기로 하였음.

-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함께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였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·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함.



‘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’ 발표

개 요

o 북한은 ‘미국의 핵타격수단’과 관련, ‘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’를 발표하였음.(4.4 중통)

주요내용

o 미국의 ‘B-52’가 남한 상공에서 실전 핵타격훈련을 벌이고, ‘F-22’는 오산 공군기지에 전개하였음.

- ‘B-2’가 서해 상공에 전개하였고, 핵동력 유도탄 잠수함·구축함들도 서해와 동해에 돌아다니고 있음.

- 곧 핵동력 초대형 항공모함도 한반도 수역에 전개한다고 함.

o 조성된 정세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말겠는가가 아니라 오늘 당장인가 아니면 내일인가하는 폭발 전야의 분초를 다투고 있음.

o 총참모부는 강력한 군사적인 실전 대응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취하게 될 것임.

o 남한의 당국자들에게는 벌써 우리의 경고 신호를 보낸 상태에 있음.

o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및 핵위협은 소형·경량·다종화된 핵타격수단으로 부셔버릴 것이며, 이와 관련한 작전이 최종 검토·비준된 상태에 있음을 정식으로 백악관과 펜타곤에 통고함.

주요인물동정

김정은(당 제1비서)

- 미상 '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무연탄 가스화공사 완공에 기여한' 차광혁 등 일꾼-근로자들에게 '감사' 전달(3.31,중방)
- 3.31 금수산태양궁전 참배(3.31,중통·중방)
- 3.31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보고 및 결론 연설(3.31,중앙TV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- 4. 1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 지원 일꾼들에게 '감사' 전달(4.1,중방)
- 미상 김인지(女)에게 '100살 생일상' 전달(4.2,중통·중방)

강석주(내각 부총리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3.31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석(3.31,중앙TV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곽범기(당 중앙위 비서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김격식(인민무력부장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김경희(당 중앙위 비서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3.31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석(3.31,중앙TV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김기남(당 중앙위 비서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3.31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석(3.31,중앙TV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- 4. 2 조선기자동맹 대표자회의(인민대학습당) 참석(4.2,중통·중방)

김양건(당 중앙위 비서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김영남(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3.31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석(3.31,중앙TV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- 4. 1 세네갈 독립 53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(4.3,중통·평방)

김영대(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)
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김영일(당 중앙위 비서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김영춘(당 중앙위 군사부장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김용진(내각 부총리)

- 4. 4 김정은 黨 제1비서(4.11)·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(4.13) 1돌 즈음 중앙사진전람회 개막식(평양대극장) 참가(4.4,중통)

김원홍(국가안전보위부장)

- 3.31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석(3.31,중앙TV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김정각(인민군 차수)
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김진하(평양시당 비서)

- 3.31 '김일성, 창덕학교 입학' 90돌 기념 보고회 참석(3.31,중방)

김창섭(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김평해(당 중앙위 비서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김형준(외무성 부상)

- 3.28 우간다 방문, 同國 수상과 담화(3.30,중통・중방)

로두철(내각 부총리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로성실(「여맹」위원장)

- 4. 3 여맹원들의 시와 노래의 모임(여성회관) 참가(4.3,중통·중방)

류미영(조선천도교청우당 위원장)
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리명수(인민군 대장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리병삼(인민보안부 정치국장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리용무(국방위 부위원장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3.31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석(3.31,중앙TV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리종무(체육상)

- 4. 2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개막식(청춘거리 농구경기관) 참석(4.2,중통・중방)

문경덕(평양시당 책임비서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박도춘(당 중앙위 비서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3.31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석(3.31,중앙TV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박봉주(내각 총리)
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양형섭(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3.31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석(3.31,중앙TV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- 4. 4 김정은 黨 제1비서(4.11)·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(4.13) 1돌 즈음 중앙사진전람회 개막식(평양대극장) 참가(4.4,중통)

오극렬(국방위원회 부위원장)
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장성택(국방위 부위원장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3.31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석(3.31,중앙TV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정태양(駐우간다 대사)

- 3.28 우간다 수상과 담화(3.30,평방)

조연준(당 중앙위 제1부부장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주규창(당 중앙위 부장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채춘희(「여맹」부위원장)

- 3.30 '국제민주여성연맹 집행委 회의' 참석차 키프로스 향발(3.30,중통·평방)

최룡해(총정치국장)

- 3.31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보고(3.31,중앙TV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최부일(인민보안부장)
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최영림(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3.31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석(3.31,중앙TV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최태복(최고인민회의 의장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3.31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석(3.31,중앙TV)

태종수(함경남도 당 책임비서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현상주(「직총」위원장)

- 4. 3 직맹원들의 연구토론회(중앙노동자회관) 참가(4.3,중통)

현영철(인민군 총참모장)

- 3.31 김정은,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3.31,중통·중방)
- 3.31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석(3.31,중앙TV)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현철해(인민무력부 제1부부장)

- 4.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(만수대의사당) 참석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
황영보(기자동맹 위원장)

- 4. 2 조선기자동맹 대표자회의(인민대학습당)에서 보고(4.2,중통·중방)

주간일지

대남동향

3.30(토)

- 北 정부·정당·단체 특별성명(3.30), '△이시각부터 南北관계는 전시상황에 돌입하며 남북간 모든 문제를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, △군사적 도발시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·핵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, △속전속결·입체전으로 대결광신자를 벌초하고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'이라고 위협(중통)

- 北 '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' 대변인, 3.30 南 언론 등 '北 軍통신 단절'에 따른 개성공단 출입 전망 보도 등(北이 외화벌이 수단인 개성공단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 등) 관련 "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려든다면 가차없이 차단, 폐쇄해버리게 될 것"이라고 '담화' 발표(중통·평방)

- 김관진 국방부장관(3.26, 지휘서신 등) 등(空·海軍 참모총장) 對北 발언 비난(핵타격의 진맛을 보여줄 것)과 청와대의 국방부장관 留任(호전분자들을 대결로 내몬 대가를 치르게 될 것) 再폭언(중통·노동신문·평방/타격전의 진맛을 톡톡히 보여줄 것이다)

- 【시사해설】 美 국방부 부장관 訪韓(3.18,국방·외교부장관 등 면담)과 韓美 국방장관 통화(3.28, 對韓 방위공약 재확인) 등 '韓美의 對北 공조 움직임'에 '韓美 동맹은 침략동맹'이라고 비난(중통/북침 핵전쟁 도발을 위한 군사적 결탁)

  * '김일성 父子 동상 정밀타격 계획' 및 외교부의 訪韓 美 재무부 차관과 對北 제재 논의 등에 대해서도 "우리가 곧 취하게 될 군사적 대응조치가 얼마나 무자비한 것인가 보여줄 것" 위협(중방·노동신문/특대형 범죄의 대가는 죽음으로)

  * '韓美 공동국지도발계획' 서명은 '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성이 더욱더 커졌다"고 비난 지속(평방/전쟁미치광이들의 위험천만한 공모결탁)

3.31(일)

- 【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 대변인 담화(3.31)】 美국방성 '2012년 기지구조보고서'의 駐韓美軍 무력증강 관련 '지역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군비경쟁과 전쟁위험성을 한층 증대시키는 것'이라며 '駐韓美軍 철수' 주장(중통)

- 우리 정부당국의 對北발언(체제결속용, 의도적 연출, 체제불안설 등) 관련 '최고 존엄에까지 도전해 나섰다'며 '이미 선포한대로 한미에 대해 온 민족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'이라고 연일 위협(중통·노동신문·평방/보복불세례를 피하기 위한 비열한 모략)

- 韓美 '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' 관련 "전면전쟁도발문서"로 규정하며, '도발자들이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는 경우 침략자들과 관련 시설들, 군사기지들을 흔적도 없이 재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'이라고 지속 위협(중통·노동신문/상전과 주구의 침략적 공모의 산물)

  * '독수리합동군사연습·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·北인권설 등' 거론 '새 정권도 반민족적인 대결의 전철을 밟고 있다'며 '역적패당이야말로 조국통일위업 실현의 암적 존재'라고 비난 및 위협(중통·노동신문/재앙의 화근을 제거하기 위한 정의의 성전)

4.1(월)

- 6.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 성명(4.1), '南 인민들은 現 사태의 근원과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똑바로 알고 미제와 괴뢰패당의 反北핵전쟁소동을 짓부시기 위한 反美대결전에 총궐기해야 한다'고 선동(중통)
- 南 언론의 對北보도(기념비 제거목록, 공세적 대북정책 등) 거론, '北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어용매문가·보수언론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'이라고 위협(중통·노동신문/붙는 불에 키질하는 보수언론)
- 美 F-22 스텔스전투기의 南 진입 및 독수리훈련 참가 계획 비난(중통)

4.2(화)

- 北 '사회민주당 중앙委' 대변인, 4.2 現 한반도 정세와 관련 '김정은의 중대결심 및 특별성명(北 정부·정당·단체)' 지지 및 '南 각 정당·단체 등 反美·대결광신자들 반대투쟁 전개' 선동 '담화' 발표(중통·평방)
  - * 北 '종교인협의회' 대변인도 4.2 담화에서 '김정은 중대결단' 지지 및 '해내외 동포들과 南 종교단체·신앙인들의 反美·미군철수 투쟁' 선동(중통·평방)
  - * '韓美의 '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'을 "전면전쟁 도발문서"라고 비난과 "침략자들과 군사기지들을 재가루로 만들 것"이라고 北 리장휘(군관) 폭언(중통)

4.3(수)

- 「조평통」 서기국 보도 제1028호, 美육군 23화학대대 재배치 관련 '민족에게 핵참화와 함께 생화학전쟁의 재난까지 들씌우려는 범죄적 기도의 발로'라며 韓美의 '생화학전쟁책동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'이라고 위협(중통·중방)
- 駐韓美軍 무력증강 관련 '군사적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북침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는 뇌관', '타격 소멸대상'이라며 韓美당국에게 '최후경고를 명심'하라고 위협(중통·노동신문/우리의 최후경고를 명심해야 한다)
  - * 'F-22스텔스전투기·23화학대대' 배치 관련 '전쟁이 일어난다면 최신형 핵타격수단들과 무력이 우리(北) 혁명무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소멸될 것'이라고 위협(평방·노동신문/군사적 도발은 파멸을 앞당기는 길이다)
- 제주4.3사건 65주년 관련 '민족의 자주적 운명개척을 위한 선결조건은 전쟁의 온상, 온갖 불행과 재난의 근원인 주한미군 철수'라며 '반미 반파쇼투쟁' 선동(중방/제주도 항쟁용사들의 넋은 대중적 투쟁을 부른다)
- 해병대의 4월 전투훈련 실시예정 관련 연합뉴스를 인용하여 비난(중방)
  - * 우리 해역에 美 해군 레이다기지 SBC-1 급파 관련 KBS보도 인용 비난(중방)

4.4(목)

- 「조평통」 대변인 중통기자 대답(4.4), '南 괴뢰패당과 보수언론이 못된 입질(돈줄, 인질구출작전 등)을 계속한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(北)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'이라고 위협(중통·중방)
- 「직총」 중앙위 대변인 성명(4.4), '南 전체 노동자들은 미제와 역적패당의 북침핵전쟁소동을 짓부시고 친미사대역적무리를 쓸어버리기 위한 성전에 떨쳐나서야 할 것'이라고 선동(중통·중방)
  - * 「청년동맹」 중앙위 대변인 성명·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도 '韓美의 反北침략행위를 짓부시기 위한 전민항쟁에 떨쳐나설 것' 거듭 선동(중통)

● 국방부장관의 對北발언(美 본토 무력까지 동원에 일거에 제압 등) 관련 '내리치는 천백배 복수의 불벼락을 청와대 안방의 치마폭도, 상전의 핵우산도 결코 막아주지 못할 것'이라고 위협(중통)

* '악의 제국과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결단코 징벌할 것이다', '미제침략군 기지들은 선군총대의 명중타격권 안에 있다' 등 題下로 위협 지속(중통·노동신문)

4.5(금)

● '北 특별성명(3.30)' 강조 및 '군사분계선·서해 5도, 미국본토 등 그 어디에서라도 움쩍하기만 하면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핵선제타격을 가할 것' 위협(중통·노동신문/우리의 최후경고, 최종결단을 명심하라)

* '최고존엄을 건드리며 무력으로 해치려는 미제와 추종세력들과는 공존할 수 없다'며 "최고사령부의 판단과 결심은 정당하다"고 위협(중통·민주조선)

● 韓美(국무총리·美 전략사령부 사령관 등)의 '北 도발타령은 사태를 왜곡하는 날조설'로 "도발자는 미국과 괴뢰들"이라고 책임 전가 및 '北 초강경 대응 조치' 정당성 주장(평방·노동신문/도발자들의 날강도적 궤변)

내부동향

3.30(토)

● "오늘의 전면대결전은 전체 조선민족 對 미국사이의 대결전"이라며 "온 겨레는 전민항쟁, 정의의 통일애국성전에 총궐기해 나서라"고 선동(중통·노동신문/조국통일 성전에 떨쳐나서는 것은 민족적 의무)

● '조선은 전쟁승리의 주체적요인(정치사상·전략전술·군사기술적)과 객관적 요인을 다 갖추고 미제와의 전면대결전에 돌입했다"고 과시(중통·노동신문/최후의 결사전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)

* 양호일(김일성군사종합대학 강좌장), "전국 요새화가 수십년 전에 완료된 조선이 철옹성이라면 미국 땅덩어리는 삶은 호박에 비유할 수 있다"고 '對美 전면전 준비완료' 호언(중통)

● 平北·黃北·咸北道, 3.30 '軍 최고사령부 성명' 지지 군민대회 진행(중통·중방)

● 김정일 저작(주체사상에 대하여) 발표(3.31) 31돌 즈음 "저작 발표 1년도 못되어 90여개 나라에서 1,000여만부의 출판물에 게재, 140여개 나라에서 단행본 출판" 선전(중통)

● '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' 선전화 출품(중통·중방)

…… 【주요인물 동정】 ……

□ 北「여맹」대표단(단장 : 채춘희 부위원장), 3.30 '국제민주여성연맹 집행委 회의' 참석차 키프로스 향발(중통·평방)

3.31(일)

● 김정은 黨 제1비서, '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무연탄 가스화공사 완공에 기여한' 차광혁 등 일꾼-근로자들에게 '감사' 전달(중방)

● 黨·최고인민회의·내각,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등 388개 단위에 '사회주의 경쟁 공동순회우승기' 수여 결정(중방)

- 김정은 黨 제1비서, 3.31 당중앙위 정치국 및 중앙군사위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(중통·중방)
  - 김영남, 최영림, 최룡해, 장성택, 현영철, 김경희, 김격식, 김기남, 최태복, 박도춘, 양형섭, 김영춘, 리용무, 강석주, 현철해, 김원홍, 김정각, 리명수, 김양건, 김영일, 김평해, 곽범기, 문경덕, 로두철, 주규창, 김창섭, 리병삼, 조연준, 태종수 등 참가
- 北, 3.31 '黨중앙위 전원회의'를 통해 '주체혁명위업수행의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당의 과업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 제출할 간부문제 및 조직문제에 대한 의정들을 상정하고 '경제·핵무력 병진노선' 채택(중통·중방·평방)
  - 전원회의는 구체적 과업으로 △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의 생산력 증대,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역량집중을 통한 단기간내 인민생활 안정 △자립적 핵동력공업 발전 및 경수로개발사업 추진 △우주과학기술발전을 통한 통신위성 등 발전된 위성들 개발 발사 △지식경제로의 전환과 대외무역의 다각화·다양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△핵무력의 법적 고착과 세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의 질량적인 확대 강화 등 명시
-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, 3.31 금수산태양궁전 참배(중통·중방)
  * 대의원들, 3.31 대성산혁명열사능·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·통일거리운동센터 참관(중통·중방)
- '김일성, 창덕학교 입학' 90돌 기념 보고회, 3.31 김진하(평양시당위 비서) 참가下 현지에서 진행(중방)
  * '김정일, 원화협동농장(평남 평원군) 명예농장원('83.3.31)' 추대 30돌 기념보고회, 3.31 진행(중통)
- 北 부활절 특별기도모임, 3.31 평양장충성당에서 진행(중통·평방)

4.1(월)

-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, 4.1 김정은 참가下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(4.1,중통·중방·중앙TV)
  - ① 사회주의헌법 일부 수정보충, ② 금수산태양궁전법, ③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화할데 대한 법령, ④ 우주개발법, ⑤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옴에 대한 결정, ⑥ 내각의 2012년 사업 정형과 2013년 과업 대하여, ⑦ 201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13년 예산에 대하여, ⑧ 조직문제 채택
  - 박봉주 → 내각총리, 최영림 →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으로 선거/김정각·리명수 → 국방위 위원에서 해임, 김격식·최부일 → 국방위 위원으로 보선/태형철 → 상임위 서기장에서 해임, 홍선옥 → 상임위 서기장으로 선거
  - 리무영(내각부총리 겸 화학공업상), 리철만(내각부총리 겸 농업상), 강영수(도시경영상), 배학(원유공업상), 리혁(수산상), 리춘삼(국가자원개발상), 김경준(국토환경보호상), 강하국(보건상), 태형철(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) 임명
  - 김영남, 최룡해, 박봉주, 최영림, 장성택, 김경희, 현영철, 김격식, 김기남, 박도춘, 김영춘, 양형섭, 이용무, 강석주, 오극렬, 현철해, 김원홍, 김양건, 김영일, 김평해, 곽범기, 문경덕, 주규창, 김창섭, 로두철, 최부일, 리병삼, 조연준, 태종수, 김정각, 리명수, 김영대, 류미영 등 참석
  *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, 4.1 인민극장에서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(중통)
- 김정은 黨 제1비서,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 지원 일꾼들에게 '감사' 전달(중방)
- '黨 중앙위 전원회의(3.31) 경제·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철저히 관철해 인민생활향상과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자'고 독려(중통·노동신문/사설, 당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자)
- 최고사령부 성명 지지 평안남도·자강도·함경남도 軍民대회, 4.1 각각 진행(중통)

● 北 각지에서 4.1 2013년 새학년도 시작(중통)/올해부터 중학생은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나뉘며 소학교의 5년제는 다음해부터 실시

…… 【주요인물 동정】 ……

□ 재일조선인예술단(단장 : 하영수)·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대표단, 4.1 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차 평양 도착(중통)

4.2(화)

● 김정은(黨 제1 비서)의 '경제건설·핵무력건설 병진노선' 제시·채택 '黨 중앙委 2013년 3월 전원회의 보고·결론' 전문 보도(중통·중방·노동신문)

- 현시기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임.
- 모든 일꾼-당원-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승리의 신심 드높이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함.

* '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'으로 "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"며 김일성 父子의 '병진노선 제시-계승발전' 칭송(중통)

* 신은후(임업성 부상)·김철호(대성구역 黨委 부장)과 한우길·천기철(노동자)·김창영(군관) 등, '병진노선 지지 및 관철의지' 반향(평방·중방·중통)

● 김정은 黨 제1비서, 김인지(女)에게 '100살 생일상' 전달(중통·중방)

● 北 '원자력총국' 대변인, 4.2 "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, 재가동 조치" 등 '현존 핵시설들의 용도를 병진노선에 맞게 조절변경 즉각 실행' 중통기자 問答(중통·중방)

● 조선기자동맹 대표자회의, 4.2 김기남(黨 비서)·황영보(기자동맹 위원장/보고) 및 각 道(직할시) 동맹 대표회의들에서 선거된 대표 등 참석下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(중통·중방)

- 대표자회에서는 조선기자동맹 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었음.

● 北 '軍 최고사령부 성명' 지지 黃南·강원도·양강도 군민대회, 4.2 진행(중통·중방)

●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(평양·청진 등에서 축구·농구 등 40개 종목) 개막식, 4.2 리종무(체육상) 등 참석下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진행(중통·중방)

● 평양시의 '지난해 20개 공원 건설' 및 올해 낙랑구역 '승리2공원' 등 市內 공원들 개건 일신계획 선전(중통)

* 조선천연흑연개발중심의 과학자-기술자들의 '천연흑연솔' 연구개발성과 및 "이 분야에서 국제규격(IEC/PAS)을 받은 유일한 나라"라고 선전(중통)

● 圖書 회상실기집 '인민들속에서' 101권 출판(중통)

● 訪北 재일조선인예술단, 4.2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(중통·중방)

…… 【주요인물 동정】 ……

□ 北「청년동맹」대표단, 4.2 남아프리카에서 귀환(중통·평방)

□ 몽골 전략연구소 대표단(단장 : 느. 도르쥐쑤렌), 4.2 평양 도착(중통·평방)

4.3(수)

- '경제와 핵무력 병진노선' 채택 관련 '미국의 핵공갈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하고 영구히 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한 것은 천백번 정당하다'고 선전(중통·노동신문/우리 혁명의 최고 이익으로부터 출발한 전략적 노선)
- 【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('93.4.9) 20돌 관련 동정】
  * 여맹원들의 시와 노래모임, 4.3 로성실(여맹위원장) 등 참가下 여성회관에서 진행(중통·중방)
  * 직맹원들의 연구토론회, 4.3 현상주(직총중앙위원장) 등 참가下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(중통)
- 최고사령부 명령지지 남포시·나선시 군민대회, 4.3 진행(중통)
- 지식인들에게 '국가학위학직' 수여식, 4.3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(중통·중방)
  - 교수(김책공대 강좌장 리정후 등)·부교수(159名) 학직, 박사학위(김일성종합대 강좌장 한영철 등) 수여
- 제15차 국제무도대회(5월 호주에서 개최)를 위한 봉화 채화식, 4.3 평양 청춘거리 무도봉화대에서 진행(중통·평방)
  * 제6차 국제체조연맹 기계체조 도전컵경기대회 참가 선수들(리세광·김진혁), 4.3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에 헌화 및 기자들과 회견(중통·중방)
  * 北 체조선수들, 4.3 카타르에서 귀국(평방)
- 駐北 이란대사, 4.3 김일성생일(4.15,태양절) 즈음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축전(중통·중방)

…… 【주요인물 동정】 ……

□ 김영남, 4.1 세네갈 독립 53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(중통·평방)

□ 인도외무성대표단(단장 : '고땀 헤만트 밤바왈레' 동아시아국 연합비서), 4.3 평양 도착(중통·평방)

4.4(목)

- 김정은 黨 제1비서(4.11),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(4.13) 1돌 즈음 중앙사진전람회 개막식, 4.4 양형섭·김용진(내각부총리) 등 참가下 평양대극장에서 진행(중통)
-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('93.4.9) 20돌 즈음 농업근로자들의 시와 노래모임, 4.4 황북 은파군에서 진행(중통)
- 개성시·희천시·옹진군 등, 최고사령부 성명 지지 軍民대회 개최 지속(중통)
- 北 내각, 4.4 제16차 국제체조연맹 기계체조 도전컵 참가 선수들(리세광·김진혁) 위해 옥류관에서 연회 마련(중통)
- 인도 외무성 대표단·몽골 전략연구소 대표단 성원들, 4.4 금수산태양궁전 참배(중통)
- 봄철 청소년적십자 나무심기 행사, 4.4 평북 구장군에서 진행(중통)
  - 나무심기 행사, 평북·함남 등 전국 각지에서 4.13일까지 진행 예정
- 김일성 생일(4.15) 즈음 제15차 김일성화축전 선전화 창작(중통)
- 국가과학원 공업정보연구중심, 분산형 컴퓨터조종체계 개발 선전(중통)

4.5(금)

- 北 '병진노선' 제시 관련 全民은 "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에서 대혁신, 대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"고 호소(중통·노동신문 사설/새로운 병진노선 따라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자)

  * 현시기 '병진노선'은 '핖-太지역의 평화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혁명적 노선'이라고 주장 및 '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' 강조(중통·노동신문·평방/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파산을 선고한 전략적 노선)

- 北 '軍 최고사령부 성명' 지지 시(구역)·군 군민대회들 계속 진행(중통·중방)

- 인도 외무성 대표단, 4.5 만경대 방문 및 주체사상탑·개선문 등 참관(중통·평방)

…… 【주요인물 동정】 ……

□ 몽골 전략연구소 대표단(단장 : 느. 도르쥐쑤렌), 4.5 귀국(중통·평방)

□ 재중조선인예술단(단장 : 김연주), 4.5 평양 도착(중통·평방)

대외동향

3.30(토)

- 【중통 논평】 美 국무부 부대변인 등 '對北 대화채널 유지' 언급에 '對北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할 생각이 없다'고 '對北정책 전환' 지속 주장(중통/미국의 대화타령은 눅거리 기만극)

  ※눅거리 : 내용이 보잘 것 없음.

  * 現 정세와 관련 "미국은 싫든 좋든 두길 중 한길을 택해야 한다"며 "그것은 조미 대결의 최후결판의 시각이 다가왔기 때문"이라고 압박(중통·노동신문·중방/침략자들에게는 물러설 시간도 자리도 없다)

  * 現 정세는 '미국의 對北 적대시 정책 때문'이라며 책임 전가 및 '조선은 지금 당중앙의 최후명령을 기다리고 있다'고 시위(중통·평방/미국은 조선반도 핵전쟁 발발의 장본인·핵으로 위협 공갈하는 시대를 영원히 끝장낼 것이다)

- 【중통 논평】 美 백악관 부대변인과 국방부장관 발언(독수리 연습과 B-2A 폭격기들 참가는 연례적·방어 목적, 도발초래 책임은 북한)을 '한반도 정세긴장 책임회피'라고 주장(중통/전면전쟁 도발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)

  * 美 B-2A 폭격기 등 한반도상공 훈련실시에 대해 '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군사적 도발'이라고 지속 비난과 '핵보유 과시 및 대응' 강조(중통·민주조선)

- 우간다 수상, 3.28 自國 방문 김형준 부상 등 北 외무성 대표단과 담화(중통·중방)

  * 우간다 수상, 3.25 自國 駐在 北 대사 정태양과 담화(평방)

- 北 리세광·김진혁(남자 조마·평행봉) 선수, 제6차 국제체조연맹 기계체조 도전컵 경기대회(3.27-29, 카타르) 금메달·은메달 쟁취(중통·중방)

3.31(일)

- 【중통 논평】 '조선반도에 조성된 핵전쟁발발의 엄중한 사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, 공갈책동으로 인해 산생된 것'이라고 왜곡하며 '정밀 핵타격수단들과 핵전쟁전법들을 다 가지고 있다'고 호언(중통/우리의 실제적인 군사행동조치는 정당하다)
  * '독수리합동군사연습' 거론 '핵공갈과 위협이 시작된 이상 그에 대응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'이라며 '괌도 기지와 일본 오키나와 해군기지들도 정밀타격수단들의 타격권 안에 있다'고 위협(중통·노동신문/도발자들은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한다)

4.1(월)

- 중통 논평(4.1), '김정은의 전략로케트군 타격계획 비준(3.29)은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, 우리식 정밀핵타격 수단과 전법으로 악의 제국인 미국을 잿더미로 만들 것'이라고 위협(중통/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조치는 정당하다)
- 日 시마네현의 '독도 약도' 발견 주장을 '독도강탈책동을 합리화해 보려는 날강도적 행위'라고 비난(중통·민주조선/독도강탈을 합리화해보려는 반동들)

4.2(화)

- 【중통 논평】 미국의 '駐韓美軍 증원 및 무력증강과 對南 장비이전' 등 비난하며 現 정세는 '한반도 정세를 악화시켜 제2의 조선전쟁에 불을 지르려는 계략'이라고 주장(중통/진리는 거수기로 가결할 수 없다)
  * 3월, '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핵전쟁의 문어구에 바싹 접근했다'며 이의 '장본인은 미국'이라고 책임 전가(평방/미국은 조선반도 평화파괴의 장본인이다)
  * 미국의 '北 핵무기 탈취를 가상한 모의작전연습과 적외선체계 위성 GEO 2호 궤도 진입 및 스텔스 전략폭격기 B-2A 한반도 상공훈련'비난(4.3,평방/핵전쟁 도발에 환장한 모험적 망동·진짜 제재대상은 미국이다 등)
- 【중통 논평】 일본의 '유엔 對北 인권결의 채택' 환영과 '아베' 수상의 '일본군성노예문제 회피'에 대해 '국제무대에서 인권을 놓고 벌리는 일본의 행위는 후안무치한 정도를 벗어났다'고 비난(중통/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)

4.3(수)

- 「조국전선」 중앙위 의장 담화(4.3), '黨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(경제·핵무력 병진노선 제시)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'이라며 '해내외 동포들이 새날을 안아오기 위한 통일성전에 적극 떨쳐나설 것'을 호소(중통·중방)
- 미 'B-52, B-2' 폭격기들 한반도 투입 관련 '초강경의지를 떠보려는 참을 수 없는 도발'이라며 '만일 적들이 조금이라도 움쩍한다면 그것들은 흔적도 없이 잿가루로 되게 될 것'이라고 지속 위협(평방·노동신문/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B-52)
- '유엔안보리가 미국의 꼭두각시로 전락되었다'며 '미국을 겨냥한 전면대결전은 '안보리'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美 패권주의에 놀아나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의의 수호전'이라고 강조 및 유엔안보리는 '공정성과 형평성 보장 위해 노력하라'고 주장(중통/미국의 꼭두각시, 허수아비 국제기구-유엔안전보장이사회)

4.4(목)

- 【北 軍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(4.4)】 한반도주변 미군 무력증강(B-52, B-2, F-22편대, 잠수함, 구축함 등) 배치 관련 '미국의 핵위협을 소형화·경량화·다종화된 첨단 핵타격으로 짓부셔 버릴 것'이라며 '무자비한 작전이 최종 검토·비준된 상태에 있음을 정식으로 백악관과 펜타곤에 통고'(중통·중방/미국은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심사숙고해야 한다)
  - 모든 험악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백악관의 미 행정부와 펜타곤 군부호전광들에게 있으며, 이미 최고사령부가 천명한대로 강력한 군사적 실전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하게 될 것임.
  - 南 현 괴뢰당국자들과 군부 깡패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벌써 우리의 경고신호를 보낸 상태에 있음.
- 日 문부과학성의 '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검정 통과' 관련 '역사왜곡행위에서 손을 떼지 못한다면 국제적 고립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 것'이라고 비난(4.4,중통/노골화되는 일본의 역사왜곡책동)

4.5(금)

- 【중통 논평】 미국의 'F-22 스텔스 전투기' 등 한반도 주변 전개를 '압도적인 군사적 위력과시로 北의 태도변화에로 유도해보려는 술책'이라며 '선군·핵무력강화 不變' 강조(중통/부나비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)
  - * 美 당국자들의 'B-2A' 폭격기의 한반도 훈련(정상적인 군사연습일환) 등 발언은 '對北 핵선제공격 기도를 가리고 엄중한 사태를 조성한 책임과 국제적 비난을 면해보려는 궤변'이라고 왜곡(중통·노동신문·평방/적대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)
  - * 美 고위정객들의 北 핵보유 비난 및 포기유도 발언(세계 평화와 안전 위협·대화와 경제지원 검토)에 대해 '反北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데서 오는 좌절감'이라고 주장 및 '병진노선 고수' 강조(중통·민주조선)

금주(3.30~4.5)의 略史

- 04.01 : 북한-중국간 직통화물열차 개통('54년)
- 04.01 : 평양-북경간 민간항공 개통('59년)
- 04.01 : 세금제도 폐지의 날('74.3.25, 제정)
- 04.02 : 방북 문익환목사허담 조평통위원장 '공동성명' 발표 ('89년)
- 04.03 : 43 제주도 인민봉기 55주년 기념일('48년)
- 04.04 :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, 서울대 총학생회의 남북학생회담 제의 (3.29.) 수락('88년)
- 04.04 : 쿠웨이트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('01년)
- 04.04 : 북한군 판문점대표부, 'DMZ 불인정' 담화 발표('96년)
- 04.05 : 천도교 창도일(1860년)
- 04.05 : 산업은행 신설('64년)※ 국립건설자금은행('50.4.1, 창립) 폐지대체
- 04.05 : 한식(민속명절, '89년부터 휴식일)
- 04.05 : 보건절('89년, 제정)
  ※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 회의, 인민보건법 채택('80년)